'三百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를 다시 생각하며

-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 교환교수

동경으로 보내온 목단꽃 소식

이른 아침에 한국의 고향집에서 어머님이 동경(東京)으로 전화를 해 주셨다. 일본에 나와 있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많으시다. 뭔가 기룬 것이 없는지 자꾸만 물으신다. 여든이 가까우신 어머님께는 쉰이 넘은 아들도 여전히 어린애다. 내가 어머님 건강을 걱정했더니 말꼬리를 돌리신다.

"올해는 목단꽃 구경도 못허네. 뜰안에 가득하게 피었어. 너댓새 지나면 다 져버릴 것인디"

어머님이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 주시는 안타까운 꽃소식이다. 우리집 뜰안 가득히 자목단꽃이 피기 시작한 모양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 꽃을 모란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단꽃이라고 한다. 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목단꽃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고향집 뜰안 장독대 옆에 오래 전부터 자목단이 자랐다. 내가 그 꽃을 창문 밖에 새로 만든 꽃밭으로 옮겨 심어 놓은 것이 벌써 스무해가 가깝다. 해마다 오월이면 수많은 꽃송이가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 동네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 꽃을 탐스러워한다. 자목단 꽃이 피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다. 커다란 꽃송이가 하늘을 향해 벙긋하

게 망울을 터트리면 널다란 초록의 잎파리가 너그럽게 꽃송이를 떠받친다. 이처럼 아름다운 짙은 자주빛 꽃잎과 노오란 꽃술이 기품있게 어울리는 꽃이 또 어디 있을까.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윽한 향기까지 뜰안 가득하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기껏해서 너댓새면 그만이다. 꽃이 피어나는 동안의 아름다움에 비한다면 큰 꽃잎이 지는 순간은 너무도 속절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해마다 자목단이 필 무렵이면 내게 며칠 후에는 꽃송이가 만개할 것이라 귀띔하고,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고향길에 오르도록 하신다. 나는 뜰안 가득히 피어나는 자목단꽃을 어머니와 함께 구경하며 옛날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목단꽃을 제일 좋아하지 않는가? 올해는 꽃들도 서운허겄네. 임자가 보아주지도 못허니."

어머님은 내가 일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뜰안에 피어나는 자목단꽃을 함께 구경하지 못하게 된 것이 서운하신 모양이다. 꽃들이 서운하겠다는 어머니 말씀에 나는 그만 가슴이 메인다. '내년 봄에는 더 이쁘게 많이 피어나라고 목단꽃에게 전해 주세요'하며 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끊었다.

어머님께서 전화로 보내 주신 고향집 목단꽃 소식을 받은 뒤에 나는 동경대학 외국인 숙소 근처의 정원 미술관(庭園 美術館)을 들러보기로 하였다. 며칠전 미술 전시회에 갔을 때 보았던 목단꽃을 구경하기 위해서다. 그때는 꽃망울이 아직 피어나기 전이었다. 나는 일본식 정원에 잇대어 심어 놓은 목단꽃을 찾았다. 마침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꽃이 볼품이 없고, 색깔도 곱지 않다. 꽃나무를 한 그루씩 떼어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수많은 꽃송이가 함께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목단의 기품을 맛볼 수가 없다. 나무 한 그루에 커다란 꽃 한송이씩 붙어 있는 모양이 오히려 애처러워 보인다. 나는 우리집 뜰안의 가득한 자목단꽃을 마음속으로만 그려보아야 했다. 그리고 정원 가장자리에 차려놓은 야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가만히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읊조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즉 나의봄을 기둘리고 잇슬테요
모란이 뚝뚝 떠러져버린날

나는 비로소 봄을여흰 서름에 잠길테요
五月어느날 그하로 무덥든날
떠러져누은 꼿닙마져 시드러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업서지고
뻐쳐오르던 내보람 서운케 문허졋느니
모란이 지고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말아
三百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즉 기둘리고잇슬테요 찰란한슬픔의 봄을

(『영랑시집』. 시문학사. 1935)

낙화(洛花) 그리고 소멸의 미학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 시의 정감에 탄복한다. 모란꽃을 늘 곁에서 아끼며 보아왔던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응이 이 시에는 담겨 있다. 이 시는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을 애써 감추고 오히려 그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순간의 애처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한다. 시인 이형기가 노래했던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낙화…'의 시구절이 함께 생각난다.

이 시에는 시적 대상으로서의 '모란'과 시적 주체로서의 '나' 사이에 일어나는 미묘한 교감의 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 모란은 늦은 봄에 꽃이 핀다. 온갖 꽃들이 서로 다투어 피어나는 봄을 생각한다면, 모란은 봄의 막바지 장면을 장식하는 꽃이라고 할 만하다. 모란꽃이 피어날 때면 벌써 신록의 아름다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계절은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란꽃이 떨어지면 이제 그 싱그러운 봄의 아름다움도 끝난다.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란이 떨어지는 순간이며, 화려한 봄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시적 진술은 모두가 이 같은 상실과 소멸의 순간에 느끼는 비애를 시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바쳐진다. 〈모란이 뚝뚝 떠러져버린 날/나는 비로소 봄을여흰 서름에 잠길테요〉라든지 〈나는 아즉 기둘리고잇슬테요 찰란한슬픔의 봄을〉이라는 대목에서 바로 이 같은 내용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시적 주체는 몇 개의 동사에 의해 그 상태와 동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시적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것은 '기다리다'라는 뜻을 지닌 '기둘리고 잇슬테요'라는 말이다. 시의 첫 대목과 끝 대목에서 쓰이고 있는 이 말은 모두가 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봄은 모란이 피어나는 것과 동격에 해당한다. '나'의 기다림의 대상이 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봄이 바로 모란이 피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란이 피어 있는 순간은 매우 짧고 마찬가지로 화려한 봄도 길지 않다. 그 짧은 화려한 봄과 잃어버린 봄을 다시 기다리는 오랜 세월은 이 시 속에서 모란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짧은 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나는 이 시에서 시적 주체를 서술하고 있는 세 개의 동사 '기둘리다', '(서름에) 잠기다', '울다' 가운데에서 열 번째 시행에 나오는 '우옵내다(울다)'를 또한 주목한다. 그 이유는 이 대목에서 시적 주체가 시적 대상과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는 것은 주체로서의 '나'만이 아니다. 모란도 꽃잎을 떨구면서 울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시적 주체로서의 '나'는 떨어지는 모란을 보고 그 모란과 함께 다시 모란이 피어날 때까지 울면서 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三百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의 '하냥'이 지닌 뜻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해석하고 있는 여러 비평가들의 글 가운데 쉽게 넘겨 버려서는 안 될 문제가 바로 〈三百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라는 시구에 자주 나타난다. 이 시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사로 쓰이는 '하냥'이라는 말의 뜻이다.

이 말은 여러 사전에서 그 의미를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에는 '하냥'이라는 말을 '늘'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고, 용례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바로 이 시구를 들고 있다. 금성출판사판 『국어대사전』에도 '한결같이 줄곧'이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으며, 역시 그 용례로 같은 시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하냥'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용법에서 '늘'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예는 찾을 수가 없다. 충청도 지방과 호남 지방에서 '하냥'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인다.

(1) 나하고 하냥 가자.
(2) 온 식구들이 모두 하냥 사는 것이 소원이다.

이같은 예로 본다면 '하냥'은 '함께 더불어' 또는 '같이 함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희승 편『국어대사전』에서만은 '하냥'을 방언으로 표시하였고 '같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여기서 '같이'는 '처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같이'라는 뜻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전의 잘못된 풀이 때문에 시구의 해석에도 오류가 생겨난다. 최근에 우리 현대시 작품을 상세하게 분석 비평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 두 책의 저자들이 모두 이 시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하냥'은 '항상' 혹은 '마냥'과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지만 그 뉘앙스는 다른 말이다. '항상'과 비교해 볼 경우 '하냥'은 그 발음이 매우 유연하며 아름답다. 무성음(ㅅ)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상'과 달리 '냥'은 구성 음운 전체가 유성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운 중에서 격음(ㅊ, ㅋ, ㅌ 등)이나 경음(ㄲ, ㄸ, ㅃ 등)보다는 평음(ㄱ, ㄷ, ㅂ 등)이 그리고 평음보다는 유성음(모음과 ㄴ, ㄹ, ㅁ, ㅇ)이 더 음악적이라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냥'과 같은 뜻의 표준어에는 '언제나'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시의 리듬상 맞지가 않다. 즉 이 시행(10번째 시행)이 '하냥'이 놓인 위치에는 2음절 단어가 와야만 음악적이다. 한편 '마냥'은 그 뜻에 있어서나 뉘앙스에 있어서 '하냥'과는 다르다. '하냥'이란 '한 가지로 한없이 기다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나 '마냥'은 '늦잡아 하는 모양'(이희승 [국어사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행위의 부정적 측면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 가령 '마냥 지각을 했다' 혹은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마냥 장난을 쳤다' 등이다. 따라서 원문의 사투리 '하냥'은 그 뜻에 비추어 보거나 언어 음악성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언제나' 혹은 '마냥'보다 훨씬 시적 의미에 적합하며 또한 소리가 아름답다(오세영.『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출판부. 1998, 165~166면).

(2) 9, 10행에서 화자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3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라고 노래한다. 여기서 노래되듯 현재는 〈모란이 부재하는 시간〉이며 이런 시간은 〈3백예순 날〉에 해당한다. 화자가 〈3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는 것은 현재이며, 이 현재는 모란이 부재하는 시간으로 인식된다. 줄여 말하면 화자의 경우 현재는 〈모란이 부재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1년에 해당한다. 어째서 〈모란이 부재하는 시간〉이 일 년이란 말인가?

9행에서 화자는 〈내 한 해〉라고 말하며, 10행에서는 그냥 〈3백 예순날〉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9행에 나오는 〈한 해〉는 〈내 한 해〉이며 10행에 나오는 〈3백예순 날〉은 내 〈3백예순 날〉이 아니다. 〈내 한 해〉란 그 1년이 어디까지나 주관적 속성을 띠고 있음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9행에 나오는 〈한 해〉는 주관적 시간을 뜻하고, 10행에 나오는 〈한 해〉는 객관적 시간을 뜻한다.

흔히 주관적 시간을 심리적 시간이라고도 하는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같은 시간이더라도 물리적으로 측량되는 시간과 심리적으로 체험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는 1년이 〈모란이 피어있는 시간〉에 해당한다. 이런 시간은 어디까지나 심리적으로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다. 물리적 시간은 비가역성을 본질로 하며 심리적 시간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여행하듯 가역성을 본질로 한다.

결국 9, 10행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 9행은 심리적 시간을 다루고 10행은 물리적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립된다. 따라서 화자가 〈하냥 섭섭해〉 우는 것은 사라진 심리적 시간으로서의 1년과 존재하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1년이 불화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냥〉은 〈같이〉의 방언이다. 〈3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는 365일을 똑같이 곧 한결같이 섭섭해서 운다는 뜻이고 화자가 이렇게 우는 것은 심리적 시간으로서의 1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1년은 〈모란이 피어있는 시간〉을 뜻한다. 화자가 진정한 삶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은 모란이 피어 있을 때이며, 이 시간이 심리적 시간으로서의 1년이다.

(이승훈. 『한국 현대시 새롭게 읽기』. 세계사. 1996, 73~74면)

앞의 (1)의 필자는 '하냥'이라는 말을 '늘'의 뜻으로 풀이한다. 음성적인 자질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시어로서의 자질을 밝혀 보고자 애를 썼지만, 잘못된 사전의 뜻풀이에 매달려 있다. (2)의 경우는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이 방언으로서 '같이'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같이'라는 뜻을 '한결같이' 또는 '똑같이'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구의 해석에서 (1)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김영랑의 이 시구는 〈삼백예순날 함께 우옵내다〉로 해석해야 한다. '하냥'을 '늘'이라는 부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는 '삼백예순날'이라는 말과 서로 겹쳐져서 불필요한 의미의 중복이 생겨난다. 이 시의 첫 구절에서부터 시적 대상으로서의 모란과 주체로서의 시적 자아가 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조건과 이행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나'는 '모란'과 일정한 간격을 둔다. 그러나 시적 진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 열 번째 시구에 이르러 그 간격이 사라진다.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봄을 여읜 슬픔에 잠긴다. 잃어버린 봄을 슬퍼하는 것은 나의 경우나 모란꽃의 경우가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모란 꽃잎이 지는 것마저도 나에게는 눈물처럼 보인다. 모란도 나도 함께 울며 봄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삼백예순날'은 모란꽃이 피어 있는 너댓새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다. 모란의 화려한 모습이 모두 사라져 버린 '부재의 세월'을 삼백예순 날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짧은 기간의 화려한 존재와 거기서 느끼는 안타까움, 그리고 기나긴 부재의 세월 속에서 다시 봄을 기다리는 심사를 시인은 이렇게 애닯도록 노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봄이 곧 모란이며 모란이 곧 봄에 해당한다.